



“기저귀 차고 환자 이송…30도 넘어도 방호복 못 벗죠”



법정에 선 성범죄 피해자가, 한점의 두려움 없도록



수능최저 완화·비교과 최소화 '고3 구제안' 두고 대학들



통합당, '차명진 응호글' 이경전 교수에 여연원장 제안 철

어느 날 당신 앞에 나타난, 고양이.



문화 책&생각

율곡 저술 집대성한 '21세기판 율곡전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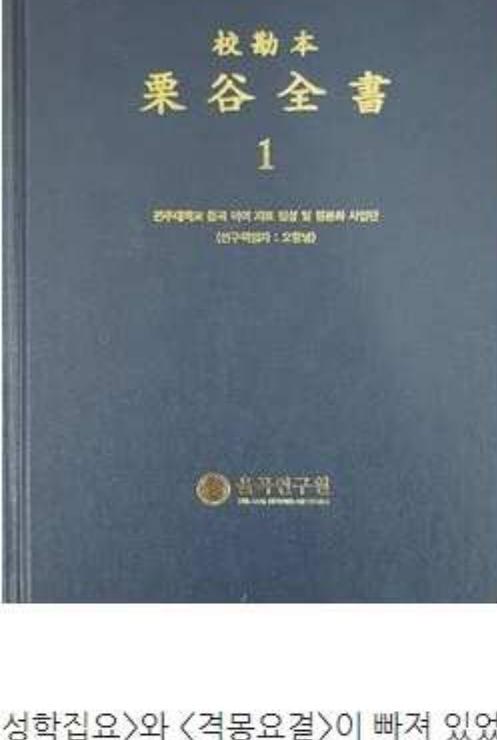
등록: 2020-06-05 06:00 수정: 2020-06-05 09:32

f t r g

+ -

교감본 율곡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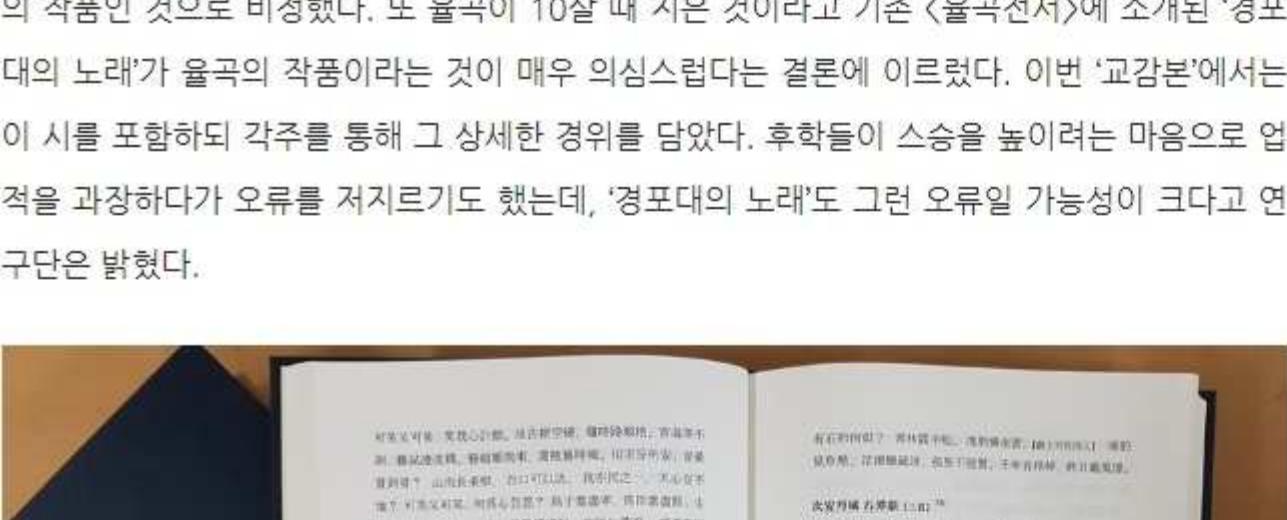
오항녕 책임 편집/율곡연구원 간행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 성리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율곡 이이(1536~1584)의 저술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교감한 <교감본 율곡전집>(전체 3권 1집)이 출간됐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율곡 이이 자료 집성과 정본화' 연구의 성과다. 연구 책임은 오항녕 전주대 교수가 맡았으며, 교감 작업에 국내 역사·철학·서지학 연구자들이 두루 참여했다.

<율곡전서>는 율곡 사후에 모두 네 차례 간행된 바 있다. 첫 번째 판은 1611년(광해군3년)에 간행됐으나,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된 소략한 분량이었다. 이에 1682년(숙종8년)에 초간본에 누락된 것을 모아 두 번째 판을 간행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율곡의 주요 저술인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이 빠져 있었다. 1742년(영조18년)에 이 주요 저술을 포함하고 율곡 저술로 알려진 것들을 망라해 세 번째 판이 간행됐다. 이어 1814년(순조14년)에 이 세 번째 판본에 부록을 포함해 중간했다.

전주대 연구단은 영조 때 간행된 세 번째 전서가 가장 충실하다고 판단해, 이 판본을 모본으로 삼아 '21세기판 율곡전서'의 교감 작업을 진행했다. 관련 학자들은 3년 동안 10여 차례 워크숍을 개최해 전체 450만자에 이르는 율곡 저작의 모든 판본을 일일이 비교했다. 그 결과로 율곡의 과거 시험 답안지인 '천도책'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1558년(23살) 때의 작품이 아닌 1564년의 작품인 것으로 비정했다. 또 율곡이 10살 때 지은 것이라고 기존 <율곡전서>에 소개된 '경포대의 노래'가 율곡의 작품이라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교감본'에서는 이 시를 포함하되 각주를 통해 그 상세한 경위를 담았다. 후학들이 스승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업적을 과장하다가 오류를 저지르기도 했는데, '경포대의 노래'도 그런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단은 밝혔다.



이번 교감본에서는 연구단의 조사 과정에서 율곡의 시문으로 분류됐지만 추가하지 못한 것도 있다. 오항녕 교수는 "이번 <교감본>은 '비판 정본'으로 가는 중단 단계에 해당한다"며 "더 많은 고증과 학계의 의견을 들어 '정본 율곡전집'을 펴내겠다"고 밝혔다. 전집을 간행한 율곡연구원(원장 박원재)은 율곡학 진흥을 위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연락처: 033-642-4982)

문화 많이 보는 기사

- '한국 현대사진 대부' 임응식…1953년 '구직' 원본 필름 공개



- 기대작 봇물 극장·공연장…“안전하다” 캠페인



- '깡'은 왜 계속 날지?



- 피케티 “시민의 정치 참여가 코로나 이후 세상 바꿀 것”



100% 쿠폰 당첨 이벤트

크록스
공식몰에서
행운의 복권에
도전해보세요.
(최대 3만원 할인)



crocs™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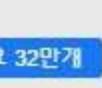
수익나는 '주식종목' 매일 추…

주식계좌, 200만원 있으면 '…

50만원 이상 주식한다면 '이…

카드론도 대환이 가능하다! …

한겨레와 친구하기



좋아요 32만개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JB정보 / 소프트웨어 자산 컨설팅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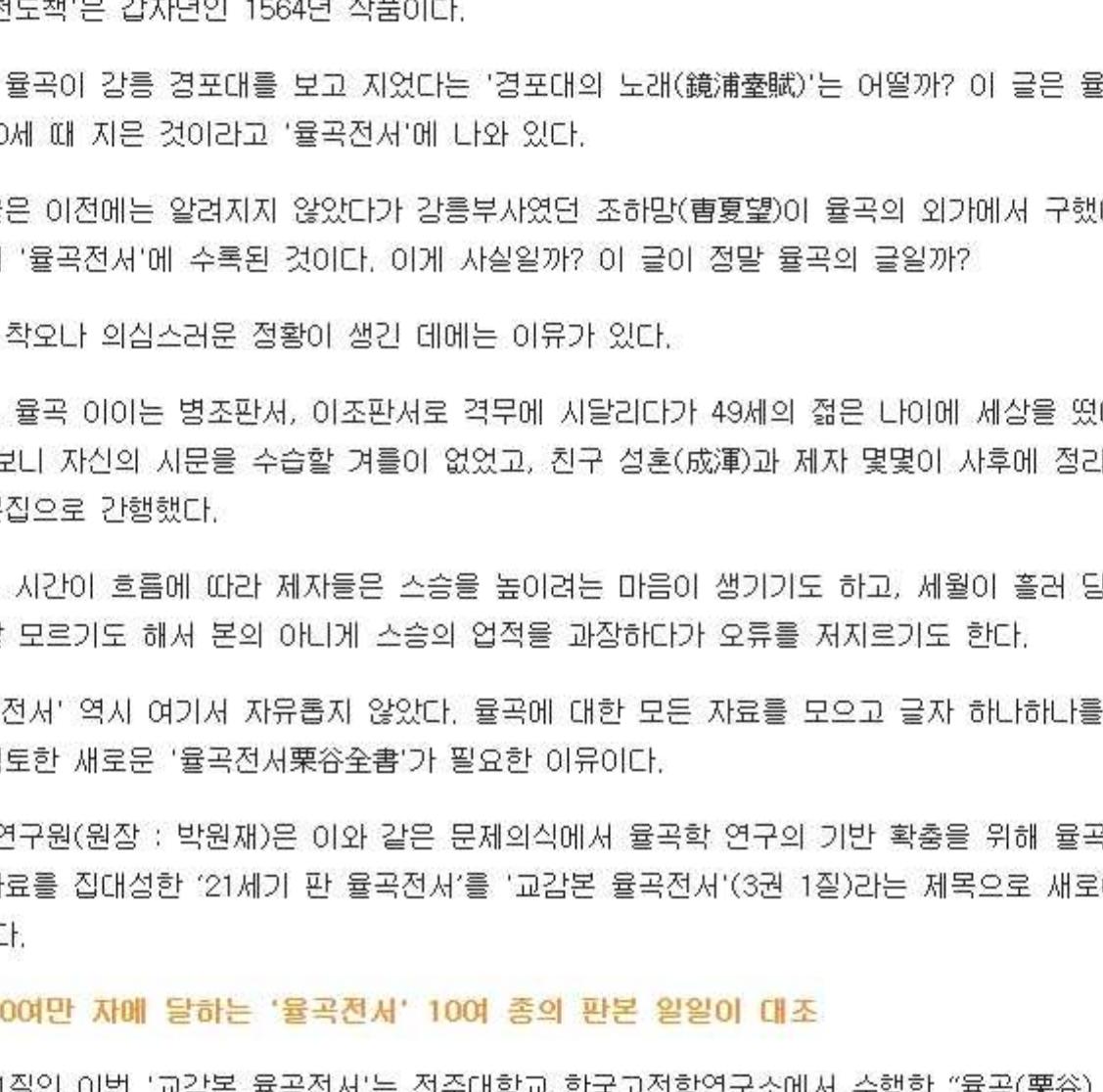
뉴스
교육

[전주대] 30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율곡 이이의 모든 것

정규설 기자 | bhaum2730@naver.com

+ - 승인 2020.06.05 10:25:16

- 율곡연구원 '교감본 율곡전서' 간행, 전주대 오향녕 교수 연구팀 정본화 성과



◆ 율곡전서를 새로 간행하는 까닭은?

아홉 번 과거에서 장원을 했다는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과거시험 답안지 '천도책(天道策)'은 조선을 대표하는 사상을 담은 뛰어난 문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북경까지 알려져 조선에 오는 사신들은 이 글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나면 영광으로 생각했다.

율곡연보에 보면 '천도책'은 23세인 무오년(1558) 작품이라고 했다.

하지만 '명종실록'이나 당시 시험관이었던 양응정(梁應鼎)의 '송천집(松川集)' 같은 기록에 따르면 '천도책'은 갑자년인 1564년 작품이다.

한편 율곡이 강릉 경포대를 보고 지었다는 '경포대의 노래(鏡浦臺賦)'는 어떨까? 이 글은 율곡이 10세 때 지은 것이라고 '율곡전서'에 나와 있다.

이 글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강릉부사였던 조하망(曹夏望)이 율곡의 외가에서 구했다고 해 '율곡전서'에 수록된 것이다. 이게 사실일까? 이 글이 정말 율곡의 글일까?

이런 착오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율곡 이이는 병조판서, 이조판서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4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시문을 수습할 겨를이 없었고, 친구 성훈(成渾)과 제자 몇몇이 사후에 정리했다가 문집으로 간행했다.

둘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자들은 스승을 높이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 당시 일을 잘 모르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스승의 업적을 과장하다가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율곡전서'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다. 율곡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글자 하나하나를 대조 검토한 새로운 '율곡전서栗谷全書'가 필요한 이유이다.

율곡연구원(원장 : 박원재)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율곡학 연구의 기반 확충을 위해 율곡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21세기 판 율곡전서'를 '교감본 율곡전서'(3권 1질)라는 제목으로 새로이 간행했다.

◆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 100여 종의 판본 일일이 대조

3권 1질인 이번 '교감본 율곡전서'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자료 집성(集成)과 정본화(定本化)" 연구(연구책임자 오향녕 전주대 교수)의 성과이다.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됐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를 10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해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했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율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해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해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 됐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를 10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해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했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율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해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해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 됐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를 10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해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했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율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해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해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 됐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를 10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해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했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율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해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해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 됐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를 10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해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했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율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해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해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 됐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를 10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해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했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율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해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해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 됐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를 10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해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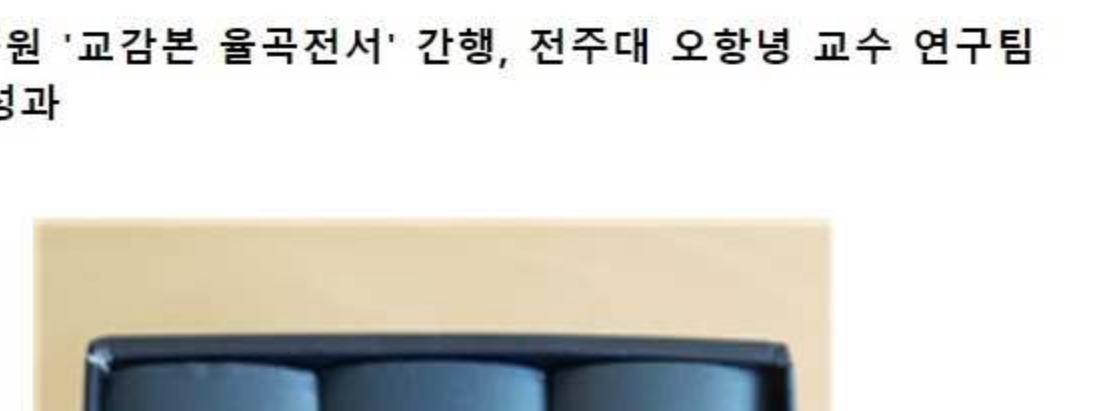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율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해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해 44권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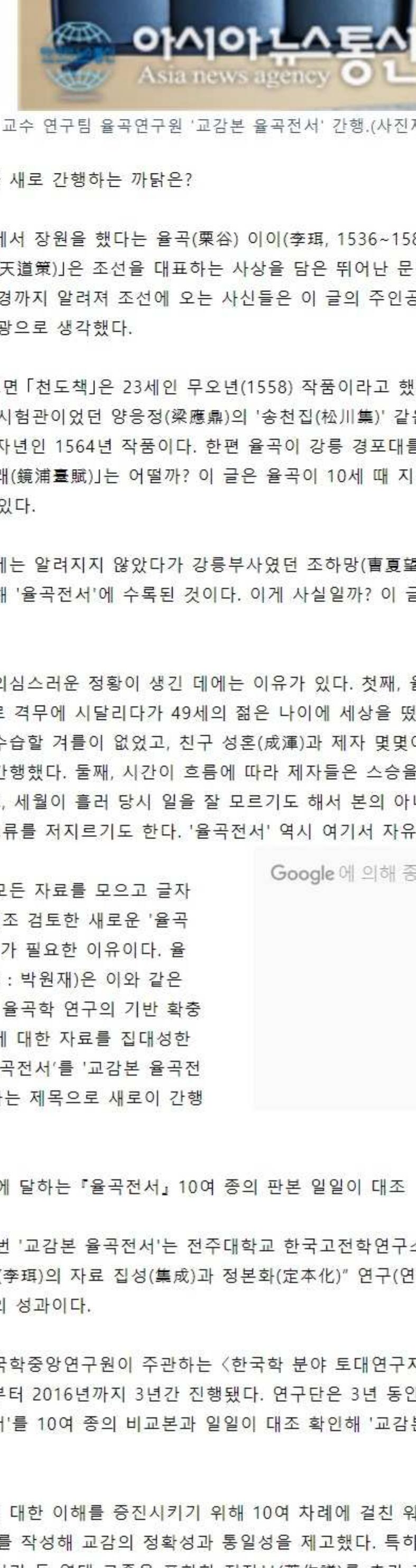


3백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을곡 이이의 모든 것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현홍기자

송고시간 2020-06-05 10:42

을곡연구원 '교감본 을곡전서' 간행, 전주대 오항녕 교수 연구팀 정본화 성과



전주대 오항녕 교수 연구팀 을곡연구원 '교감본 을곡전서' 간행.(사진제공=전주대)

◆ 을곡전서를 새로 간행하는 까닭은?

아홉 번 과거에서 장원을 했다는 을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과거시험 답안지 「천도책(天道策)」은 조선을 대표하는 사상을 담은 뛰어난 문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북경까지 알려져 조선에 오는 사신들은 이 글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나면 영광으로 생각했다.

을곡연보에 보면 「천도책」은 23세인 무오년(1558) 작품이라고 했다. 하지만 '명종실록'이나 당시 시험관이었던 양응정(梁應鼎)의 '송천집(松川集)' 같은 기록에 따르면 「천도책」은 갑자년인 1564년 작품이다. 한편 을곡이 강릉 경포대를 보고 지었다는 「경포대의 노래(鏡浦臺賦)」는 어떨까? 이 글은 을곡이 10세 때 지은 것이라고 '을곡전서'에 나와 있다.

이 글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강릉부사였던 조하망(曹夏望)이 을곡의 외가에 서 구했다고 해 '을곡전서'에 수록된 것이다. 이게 사실일까? 이 글이 정말 을곡의 글일까?

이런 착오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을곡 이이는 병조판서, 이조판서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4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시문을 수습할 겨를이 없었고, 친구 성훈(成渾)과 제자 몇몇이 사후에 정리했다가 문집으로 간행했다. 둘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자들은 스승을 높이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 당시 일을 잘 모르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스승의 업적을 과장하다가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을곡전서'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다.

을곡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글자 하나하나를 대조 검토한 새로운 '을곡전서(栗谷全書)'가 필요한 이유이다. 을

곡연구원(원장 : 박원재)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을곡학 연구의 기반 확충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을 위해 을곡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21세기 판 을곡전서'를 '교감본 을곡전

서'(3권 1질)라는 제목으로 새로이 간행

했다.

◆ 90여만 자에 달하는 「을곡전서」 10여 종의 판본 일일이 대조

3권 1질인 이번 '교감본 을곡전서'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을

곡(栗谷) 이이(李珥)의 자료 집성(集成)과 정본화(定本化)" 연구(연구책임자 오항녕

전주대 교수)의 성과이다.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의 일환

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됐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

하는 「을곡전서」를 1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을곡전서'를 완

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해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했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을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을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을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을곡집'이 첫 번째이다. 을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뤄진 소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해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흥계회(洪啓會)가 습유를 추가해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을

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됐다.

'교감본 을곡전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1611년에 간행된 '을곡집'과 1682년 박세

채가 편성·간행한 '을곡속집', '을곡외집', '을곡별집' 등에 수록된 작품들 또한 '을곡

전서'의 동일 작품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교감을 거쳤다. 그리고 편집 체제는 이재의

'을곡전서'의 기본 편성을 유지하되 교감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한국고전번역

원(원장 신승운)에서 제공한 「한국문집 번역·교점·지침 및 사례」에 따라 현대식 표점

(標點)도 표시해 전문 학자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을곡전서'의 국

제화에도 편리하도록 했다.

◆ '을곡학'이라는 대해를 향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 역할 기대

한편, '교감본 을곡전서'의 간행을 가능케 한 "을곡 이이의 자료 집성과 정본화" 사업

팀에는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오항녕 교수 외에, 정석태(부산대), 김경호(전남대), 김

태완(충실대), 이동국(예술의전당), 정재훈(경북대), 정해득(한신대), 이희중·이상돈

(서울대), 이경동(고려대), 이인복(경북대) 등, 국내외 역사, 철학, 서지학 연구자들이

두루 참여해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교감본 을곡전서' 간행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오항녕 교수는 "집을 지을 때 좋은 벽들과 나무가 필요하듯이, 인물 연구에는 그가 남긴 문집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본(正本)이 필요하다. 칸트나 마르크스 연구도 그들의 저술을 정본화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근래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에 대한 정본화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감본 을곡전서'는 을곡 이이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정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재 원장 또한 "을곡학이라는 대해를 향해하는 데 필수적인 최신 나침반을 새로

마련한 격"이라고 자평하면서, "'교감본 을곡전서'가 을곡학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하

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을곡연구원에서는 을곡학 진흥 차원에서 이번에 간행된 '교감본 을곡전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김현홍 기자]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 '을곡학'이라는 대해를 향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 역할 기대

한편, '교감본 을곡전서'의 간행을 가능케 한 "을곡 이이의 자료 집성과 정본화" 사업

팀에는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오항녕 교수 외에, 정석태(부산대), 김경호(전남대), 김

태완(충실대), 이동국(예술의전당), 정재훈(경북대), 정해득(한신대), 이희중·이상돈

(서울대), 이경동(고려대), 이인복(경북대) 등, 국내외 역사, 철학, 서지학 연구자들이

두루 참여해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교감본 을곡전서' 간행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오항녕 교수는 "집을 지을 때 좋은 벽들과 나무가 필요하듯이, 인물 연구에는 그가 남긴 문집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본(正本)이 필요하다. 칸트나 마르크스 연구도 그들의 저술을 정본화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근래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에 대한 정본화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감본 을곡전서'는 을곡 이이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정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재 원장 또한 "을곡학이라는 대해를 향해하는 데 필수적인 최신 나침반을 새로

마련한 격"이라고 자평하면서, "'교감본 을곡전서'가 을곡학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하

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을곡연구원에서는 을곡학 진흥 차원에서 이번에 간행된 '교감본 을곡전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김현홍 기자]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주름펴라

힐링과 온천의 휴양도시

기장군 기장

항노화 힐링특구 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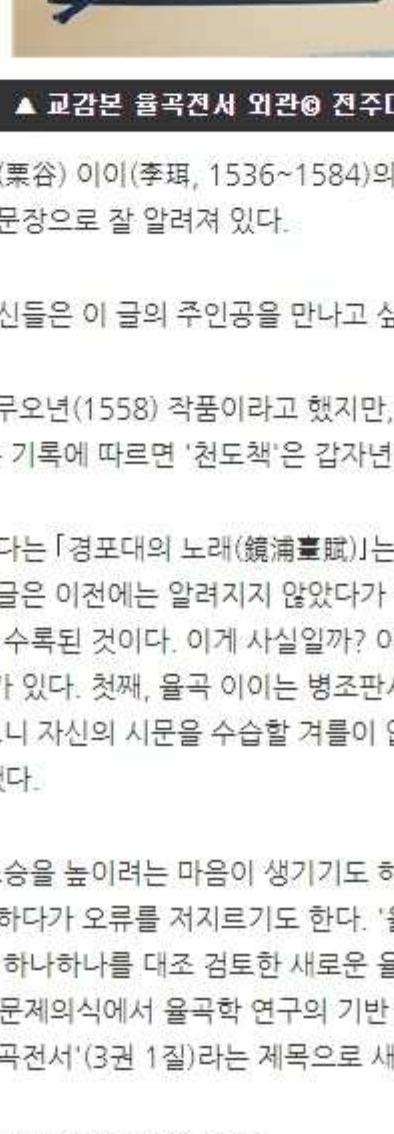
전북소식 3백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율곡 이이의 모든 것

방계홍 기자

기사

글풀 + 글풀 -

입력 : 2020-06-05 12:35:01



▲ 교감본 율곡전서 외관© 전주대

아홉 번 과거에서 장원을 했다는 윤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과거시험 답안지 「천도책(天道策)」은 조선을 대표하는 사상을 담은 뛰어난 문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북경까지 알려져 조선에 오는 사신들은 이 글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나면 영광으로 생각했다.

율곡연보에 보면 「천도책」은 23세인 무오년(1558) 작품이라고 했지만, 「명종실록」이나 당시 시험관이었던 양 응정(梁應鼎)의 「송천집(松川集)」 같은 기록에 따르면 「천도책」은 갑자년인 1564년 작품이다.

한편 윤곡이 강릉 경포대를 보고 지었다는 「경포대의 노래(鏡浦臺賦)」는 어떨까? 이 글은 윤곡이 10세 때 지은 것이라고 '율곡전서'에 나와 있다. 이 글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강릉부사였던 조하망(曹夏望)이 윤곡의 외가에서 구했다고 하여 '율곡전서'에 수록된 것이다. 이게 사실일까? 이 글이 정말 윤곡의 글일까? 이런 착오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윤곡 이이는 병조판서, 이조판서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4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시문을 수습할 겨를이 없었고, 친구 성흔(成渾)과 제자 몇몇이 사후에 정리하였다가 문집으로 간행했다.

둘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자들은 스승을 높이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 당시 일을 잘 모르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스승의 업적을 과장하다가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율곡전서」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다. 윤곡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글자 하나하나를 대조 검토한 새로운 윤곡전서栗谷全書가 필요한 이유이다. 윤곡연구원(원장 : 박원재)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윤곡학 연구의 기반 확충을 위해 윤곡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21세기 판 윤곡전서'를 '교감본 윤곡전서'(3권 1집)라는 제목으로 새로이 간행하였다.

90여만 자에 달하는 「윤곡전서」 10여 종의 판본 일일이 대조

3권 1집인 이번 '교감본 윤곡전서'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윤곡(栗谷) 이이(李珥)의 자료집성(集成)과 정본화(定本化)" 연구(연구책임자 오항녕 전주대 교수)의 성과이다.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윤곡전서」를 1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윤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하여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했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윤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윤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윤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윤곡집」이 첫 번째이다. 윤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 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 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하여 편찬한 뒤, 흥계회(洪啓會)가 습유를 추가하여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윤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 14)에 다시 증간(重刊)됐다.

「윤곡전서」는 중국 송나라 학자였던 경이(程頤)와 정호(程顥) 형제의 문집인 「이정전서(二程全書)」의 체제를 본뜬 것이다. 시문(詩文)과 함께 「격몽요결」, 「성학집요」, 「경연일기」 등 윤곡의 단독 저술을 망라하여 「윤곡집」 또는 「윤곡선생집」이 아닌 「윤곡전서」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이 「윤곡전서」는 이전에 전해지던 모본(母本) 문집들과 차이가 있었고, 일부 작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자료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교감본 윤곡전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1611년에 간행된 윤곡집과 1682년 박세채가 편성·간행한 윤곡속집, 윤곡외집, 윤곡별집 등에 수록된 작품들 또한 윤곡전서의 등일 작품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감을 거쳤다. 그리고 편집 체제는 이재의 윤곡전서의 기본 편성을 유지하되 교감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신승운)에서 제공한 「한국문집 번역·교점·지침 및 사례」에 따라 현대식 표점(標點)도 표시하여 전문 학자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윤곡전서의 국제화에도 편리하도록 했다.

「윤곡학」이라는 대체를 향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 역할 기대

한편, 교감본 윤곡전서의 간행을 가능케 한 "윤곡 이이의 자료집성과 정본화" 사업팀에는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오항녕 교수 외에, 정석태(부산대), 김경호(전남대), 김태완(숭실대), 이동국(예술의전당), 정재훈(경북대), 정해득(한신대), 이희중·이상돈(서울대), 이경동(고려대), 이인복(경북대) 등, 국내외 역사, 철학, 서지학 연구자들이 두루 참여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교감본 윤곡전서 간행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오항녕 교수는 "집을 지을 때 좋은 벽돌과 나무가 필요하듯이, 인물 연구에는 그가 남긴 문집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본(正本)이 필요하다. 칸트나 마르크스 연구도 그들의 저술을 정본화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근래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에 대한 정본화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감본 윤곡전서는 윤곡 이이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정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재 원장 또한 "윤곡학이라는 대체를 향해하는 데 필수적인 최신 나침반을 새로 마련한 격"이라고 자평하면서, "교감본 윤곡전서가 윤곡학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곡연구원에서는 윤곡학 진흥 차원에서 이번에 간행된 교감본 윤곡전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전주매일

NEWS

전체보기

문화 일반

전시·공연

문화·출판

기획 기사

◆ 뉴스 홈 > 문화 > 문학·출판 기사목록

글자크게 +

글자작게 -

3백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율곡 이이의 모든 것

율곡연구원 '교감본 유품전서' 간행... 전주대 오항녕 교수 연구팀 정본화 성과

기사입력 2020-06-05 오후 8:42:00 | 최종수정 2020-06-05 20:42



율곡연구원(원장 박원재)은 유품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21세기 판 유품전서'를 '교감본 유품전서'(3권 1집)라는 제목으로 새로이 간행했다고 밝혔다.

3권 1집인 이번 '교감본 유품전서'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자료집성(集成)과 정본화(定本化)' 연구(연구책임자 오항녕 전주대 교수)의 성과다.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됐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0여만 자에 달하는 '유품전서'를 1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유품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해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했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유품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유품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유품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해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하여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유품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했다.

'율곡전서'는 중국 송나라 학자였던 정미와 정호(程顥) 형제의 문집인 '이정전서(二程全書)'의 체제를 본뜬 것이다. 시문(詩文)과 함께 '격몽요결', '성학집요', '경연일기' 등 유품의 단독 저술을 망라해 '율곡집' 또는 '율곡선생집'이 아닌 '율곡전서'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이 '율곡전서'는 미전에 전해지던 모본(母本) 문집들과 차이가 있었고, 일부 작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자료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교감본 유품전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1611년에 간행된 '율곡집'과 1682년 박세채가 편성·간행한 '율곡속집', '율곡외집', '율곡별집' 등에 수록된 작품을 또한 '유품전서'의 동일 작품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교감을 거쳤다. 그리고 편집 체제는 이재의 '율곡전서'의 기본 편성을 유지하되 교감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신승운)에서 제공한 '한국문집 번역·교점·지침 및 사례'에 따라 현대식 표점(標點)도 표시해 전문 학자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율곡전서'의 국제화에도 편리하도록 했다.

이번 '교감본 유품전서' 간행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오항녕 교수는 "집을 지을 때 좋은 벽돌과 나무가 필요하듯이, 인물 연구에는 그가 남긴 문집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본(正本)이 필요하다"며 "칸트나 마르코스 연구도 그들의 저술을 정본화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근래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에 대한 정본화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감본 유품전서'는 유품 이이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정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장은성 기자

30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율곡 이이의 모든 것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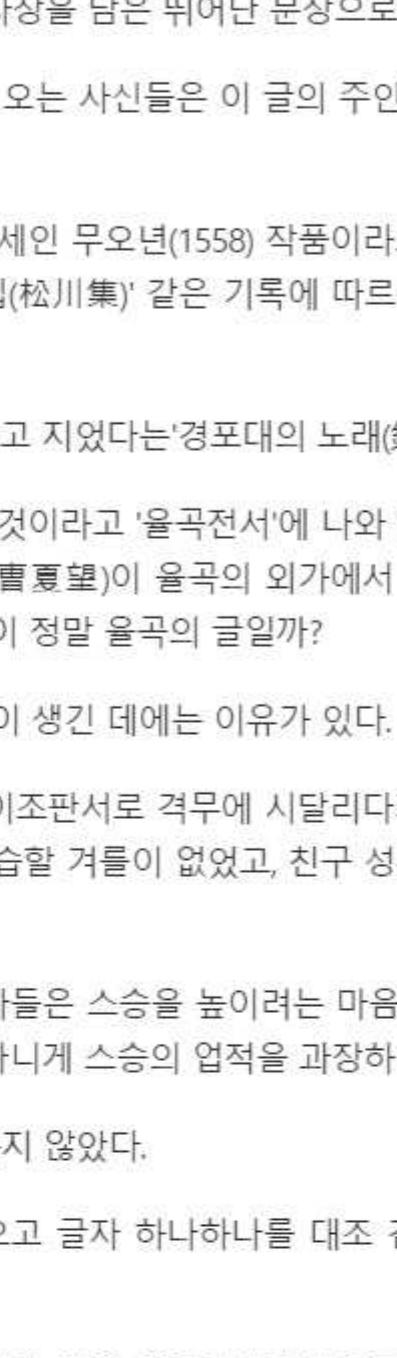
□ 이제봉 기자 | ○ 승인 2020.06.05 21:51 | ○ 댓글 0

율곡연구원'교감본 율곡전서'간행

전주대 오항녕 교수 연구팀 정본화 성과

90여만 자에 달하는'율곡전서'10여종 판본 일일이 대조

'율곡학'에 대해 필요한 나침반 역할 기대



아홉 번 과거에서 장원을 했다는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과거시험 답안지'천도책'(天道策)은 조선을 대표하는 사상을 담은 뛰어난 문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북경까지 알려져 조선에 오는 사신들은 이 글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나면 영광으로 생각했다.

율곡연보에 보면'천도책'은 23세인 무오년(1558) 작품이라고 했다. 하지만 '명종실록'이나 당시 시험관이었던 양응정의'송천집(松川集)' 같은 기록에 따르면 '천도책'은 갑자년인 1564년 작품이다.

한편 율곡이 강릉 경포대를 보고 지었다는'경포대의 노래(鏡浦臺賦)'는 어떨까?

이 글은 율곡이 10세 때 지은 것이라고 '율곡전서'에 나와 있다. 이 글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강릉부사였던 조하망(曹夏望)이 율곡의 외가에서 구했다고 하여 '율곡전서'에 수록된 것이다. 이게 사실일까? 이 글이 정말 율곡의 글일까?

이런 착오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율곡 이이는 병조판서, 이조판서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4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시문을 수습할 겨를이 없었고, 친구 성훈(成渾)과 제자 몇몇이 사후에 정리했다가 문집으로 간행했다.

둘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자들은 스승을 높이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 당시 일을 잘 모르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스승의 업적을 과장하다가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율곡전서'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다.

율곡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글자 하나하나를 대조 검토한 새로운'율곡전서栗谷全書'가 필요한 이유이다.

율곡연구원(원장 박원재)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율곡학 연구의 기반 확충을 위해 율곡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21세기 판 율곡전서를 '교감본 율곡전서'(3권 1질)라는 제목으로 새로이 간행했다.

3권 1질인 이번'교감본 율곡전서'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자료 집성(集成)과 정본화(定本化)' 연구(연구책임자 오항녕 전주대 교수)의 성과다.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됐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를 1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하여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율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하여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됐다.

'율곡전서'는 중국 송나라 학자였던 정이와 정호(程顥) 형제의 문집인 '이정전서(二程全書)'의 체제를 본뜬 것이다.

시문(詩文)과 함께'격몽요결', '성학집요', '경연일기' 등 율곡의 단독 저술을 망라하여 '율곡집' 또는 '율곡선생집'이 아닌 '율곡전서'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이 '율곡전서'는 이전에 전해지던 모본(母本) 문집들과 차이가 있었고 일부 작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자료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교감본 율곡전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1611년에 간행된 '율곡집'과 1682년 박세채가 편성·간행한 '율곡속집', '율곡외집', '율곡별집' 등에 수록된 작품들 또한 '율곡전서'의 동일 작품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교감을 거쳤다.

그리고 편집 체제는 이재의 '율곡전서'의 기본 편성을 유지하되 교감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신승운)에서 제공한 '한국문집 번역·교점·지침 및 사례'에 따라 현대식 표점(標點)도 표시하여 전문 학자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율곡전서'의 국제화에도 편리하도록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하여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됐다.

'율곡전서'는 중국 송나라 학자였던 정이와 정호(程顥) 형제의 문집인 '이정전서(二程全書)'의 체제를 본뜬 것이다.

시문(詩文)과 함께'격몽요결', '성학집요', '경연일기' 등 율곡의 단독 저술을 망라하여 '율곡집' 또는 '율곡선생집'이 아닌 '율곡전서'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이 '율곡전서'는 이전에 전해지던 모본(母本) 문집들과 차이가 있었고 일부 작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자료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교감본 율곡전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1611년에 간행된 '율곡집'과 1682년 박세채가 편성·간행한 '율곡속집', '율곡외집', '율곡별집' 등에 수록된 작품들 또한 '율곡전서'의 동일 작품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교감을 거쳤다.

그리고 편집 체제는 이재의 '율곡전서'의 기본 편성을 유지하되 교감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신승운)에서 제공한 '한국문집 번역·교점·지침 및 사례'에 따라 현대식 표점(標點)도 표시하여 전문 학자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율곡전서'의 국제화에도 편리하도록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하여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됐다.

'율곡전서'는 중국 송나라 학자였던 정이와 정호(程顥) 형제의 문집인 '이정전서(二程全書)'의 체제를 본뜬 것이다.

시문(詩文)과 함께'격몽요결', '성학집요', '경연일기' 등 율곡의 단독 저술을 망라하여 '율곡집' 또는 '율곡선생집'이 아닌 '율곡전서'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이 '율곡전서'는 이전에 전해지던 모본(母本) 문집들과 차이가 있었고 일부 작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자료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교감본 율곡전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1611년에 간행된 '율곡집'과 1682년 박세채가 편성·간행한 '율곡속집', '율곡외집', '율곡별집' 등에 수록된 작품들 또한 '율곡전서'의 동일 작품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교감을 거쳤다.

그리고 편집 체제는 이재의 '율곡전서'의 기본 편성을 유지하되 교감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신승운)에서 제공한 '한국문집 번역·교점·지침 및 사례'에 따라 현대식 표점(標點)도 표시하여 전문 학자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율곡전서'의 국제화에도 편리하도록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하여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됐다.

'율곡전서'는 중국 송나라 학자였던 정이와 정호(程顥) 형제의 문집인 '이정전서(二程全書)'의 체제를 본뜬 것이다.

시문(詩文)과 함께'격몽요결', '성학집요', '경연일기' 등 율곡의 단독 저술을 망라하여 '율곡집' 또는 '율곡선생집'이 아닌 '율곡전서'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이 '율곡전서'는 이전에 전해지던 모본(母本) 문집들과 차이가 있었고 일부 작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자료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교감본 율곡전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1611년에 간행된 '율곡집'과 1682년 박세채가 편성·간행한 '율곡속집', '율곡외집', '율곡별집' 등에 수록된 작품들 또한 '율곡전서'의 동일 작품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교감을 거쳤다.

그리고 편집 체제는 이재의 '율곡전서'의 기본 편성을 유지하되 교감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신승운)에서 제공한 '한국문집 번역·교점·지침 및 사례'에 따라 현대식 표점(標點)도 표시하여 전문 학자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율곡전서'의 국제화에도 편리하도록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해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하여 44권 38책으로 간행했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됐다.

'율곡전서'는 중국 송나라 학자였던 정이와 정호(程顥) 형제의 문집인 '이정전서(二程全書)'의 체제를 본뜬 것이다.

시문(詩文)과 함께'격몽요결', '성학집요', '경연일기' 등 율곡의 단독 저술을 망라하여 '율곡집' 또는 '율곡선생집'이 아닌 '율곡전서'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이 '율곡전서'는 이전에 전해지던 모본(母本) 문집들과 차이가 있었고 일부 작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자료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교감본 율곡전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1611년에 간행된 '율곡집'과 1682년 박세채가 편성·간행한 '율곡속집', '율곡외집', '율곡별집' 등에 수록된 작품들 또한 '율곡전서'의 동일 작품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교감을 거쳤다.

그리고 편집 체제는 이재의 '율곡전서'의 기본 편성을 유지하되 교감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신승운)에서 제공한 '한국문집 번역·교점·지침 및 사례'에 따라 현대식 표점(標點)도 표시하여 전문 학자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율곡전서'의 국제화에도 편리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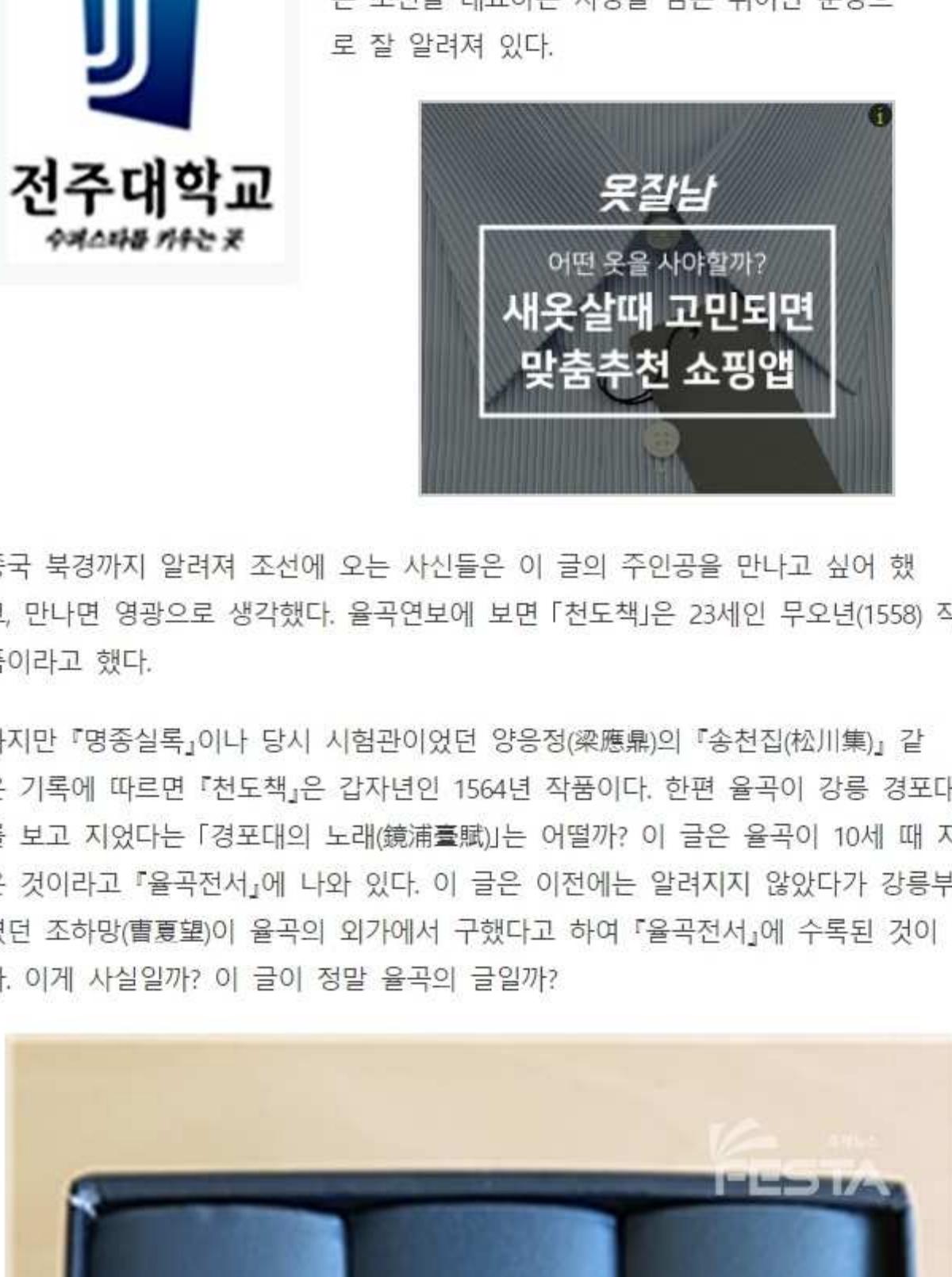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HOME > 지역 > 전북

3백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율곡 이이의 모든 것

율곡연구원『교감본 율곡전서』 간행, 전주대 오항녕 교수 연구팀 정본화 성과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0.06.06 22:18 ● 댓글 0



율곡전서를 새로 간행하는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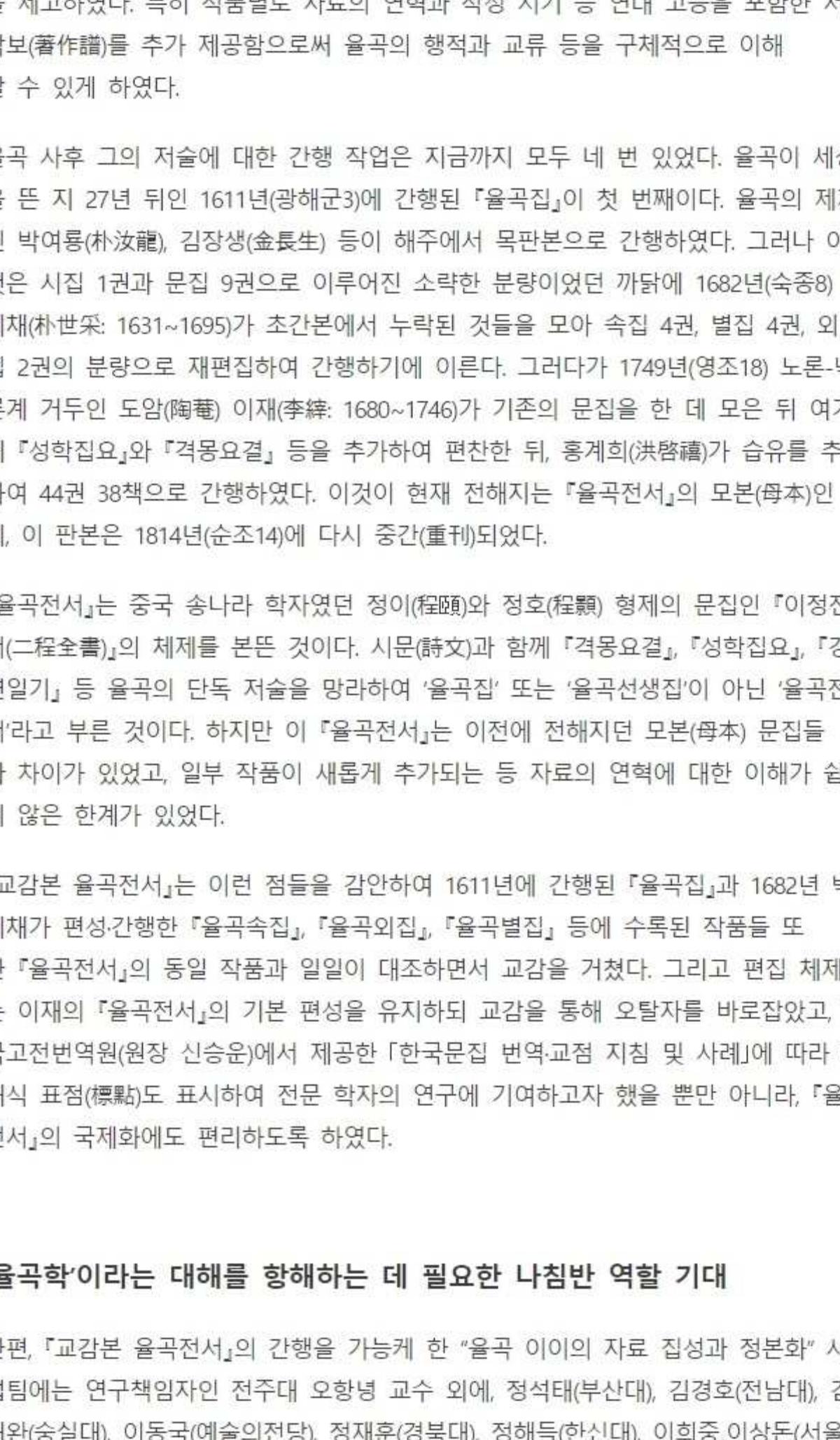
**전주대학교**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아홉 번 과거에서 장원을 했다는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과거시험 답안지 「천도책(天道策)」은 조선을 대표하는 사상을 담은 뛰어난 문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북경까지 알려져 조선에 오는 사신들은 이 글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나면 영광으로 생각했다. 율곡연보에 보면 「천도책」은 23세인 무오년(1558) 작품이라고 했다.

하지만 「명종실록」이나 당시 시험관이었던 양응정(梁應鼎)의 「송천집(松川集)」 같은 기록에 따르면 「천도책」은 갑자년인 1564년 작품이다. 한편 율곡이 강릉 경포대를 보고 지었다는 「경포대의 노래(鏡浦臺賦)」는 어떨까? 이 글은 율곡이 10세 때 지은 것이라고 「율곡전서」에 나와 있다. 이 글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강릉부사였던 조하망(曹夏望)이 율곡의 외가에서 구했다고 하여 「율곡전서」에 수록된 것이다. 이게 사실일까? 이 글이 정말 율곡의 글일까?



이런 착오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윤곡 이이는 병조판서, 이조판서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4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시문을 수습할 겨려가 없었고, 친구 성흔(成渾)과 제자 몇몇이 사후에 정리하였다가 문집으로 간행했다.

둘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자들은 스승을 높이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 당시 일을 잘 모르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스승의 업적을 과장하다가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율곡전서」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다. 율곡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글자 하나하나를 대조 검토한 새로운 「율곡전서栗谷全書」가 필요한 이유이다. 율곡연구원(원장 : 박원재)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율곡학 연구의 기반 확충을 위해 율곡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21세기 판 율곡전서'를 「교감본 율곡전서」(3권 1질)라는 제목으로 새로이 간행하였다.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 10여 종의 판본 일일이 대조

3권 1질인 이번 「교감본 율곡전서」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자료 집성(集成)과 정본화(定本化)" 연구(연구책임자 오항녕 전주대 교수)의 성과이다.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를 1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하여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율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윤곡이 세상을 뜯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윤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陶庵) 이재(李緯: 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하여 편찬한 뒤, 홍계희(洪啓禧)가 습유를 추가하여 44권 38책으로 간행하였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母本)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重刊)되었다.

'율곡학'이라는 대학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 역할 기대

한편, 「교감본 율곡전서」의 간행을 가능하게 한 "율곡 이이의 자료 집성과 정본화" 사업팀에는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오항녕 교수 외에, 정석태(부산대), 김경호(전남대), 김태완(충남대), 이동국(예술의전당), 정재훈(경북대), 정해득(한신대), 이희중(서울대), 이경동(고려대), 이인복(경북대) 등, 국내외 역사, 철학, 서지학 연구자들이 두루 참여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교감본 율곡전서」 간행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전주대 오항녕 교수는 "집을 지을 때 좋은 벽돌과 나무가 필요하듯이, 인물 연구에는 그가 남긴 문집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본(正本)이 필요하다. 칸트나 마르크스 연구도 그들의 저술을 정본화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근래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에 대한 정본화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감본 율곡전서」는 윤곡 이이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정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박원재 원장 또한 "율곡학이라는 대학을 항해하는 데 필수적인 최신 나침반을 새로 마련한 격"이라고 자평하면서, "「교감본 율곡전서」가 윤곡학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율곡연구원(033-642-4982)에서는 윤곡학 진흥 차원에서 이번에 간행된 「교감본 율곡전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스마트농생명밸리 농기계 클러스터

기사

HOME > 문화 > 문화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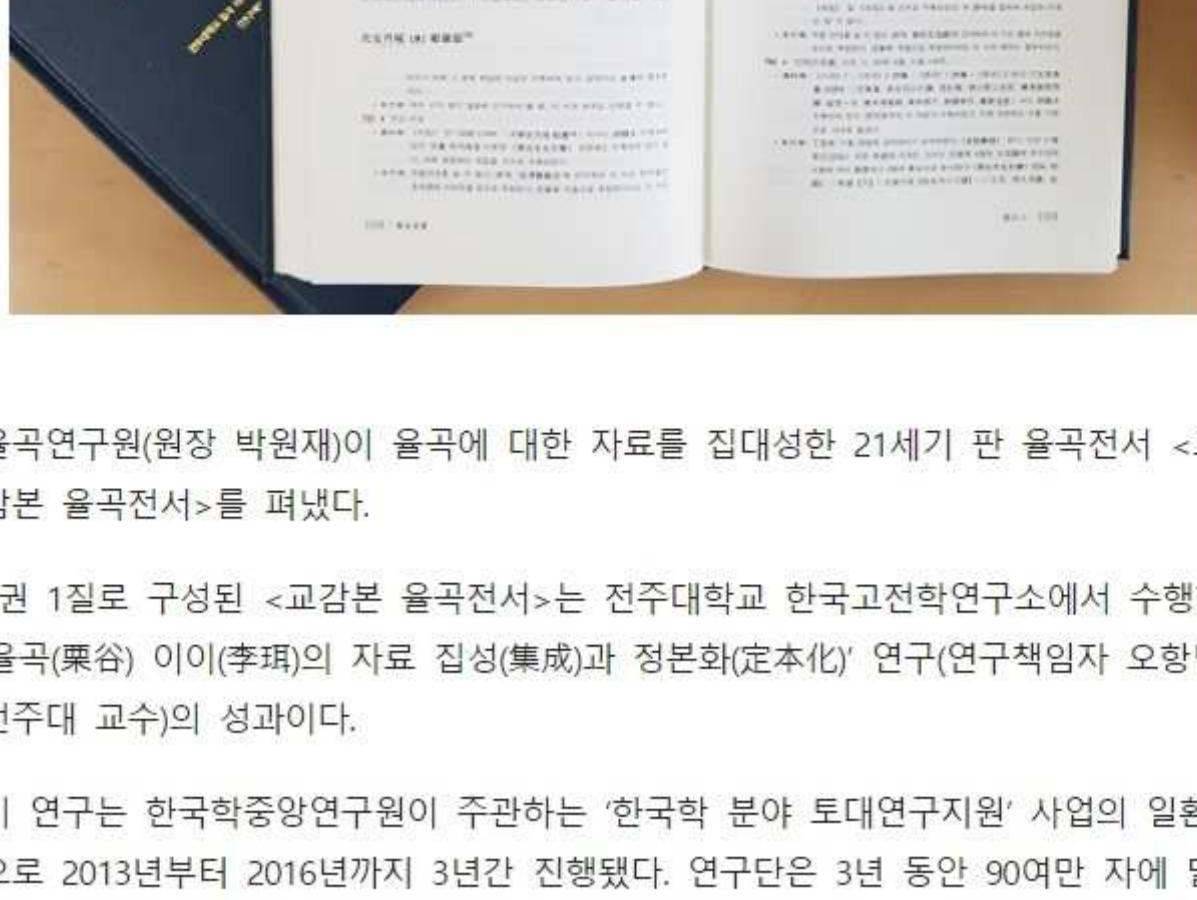
율곡 이이의 모든 것 21세기 판전서 발간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자료 집대성·정본화 성과물 3년간 90여만자에 달하는 비교본 10여종 일일이 대조

이병재 기자 | 승인 2020.06.08 | 12면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 - | ☐ |昌인쇄하기



율곡연구원(원장 박원재)이 율곡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21세기 판 율곡전서 <교감본 율곡전서>를 평냈다.

3권 1질로 구성된 <교감본 율곡전서>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자료 집성(集成)과 정본화(定本化)' 연구(연구책임자 오항녕 전주대 교수)의 성과이다.

이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됐다. 연구단은 3년 동안 90여만 자에 달하는 ??율곡전서>를 10여 종의 비교본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교감본 율곡전서>를 완성했다.

교감과 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교감 범례를 작성하여 교감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작품별로 자료의 연혁과 작성 시기 등 연대 고증을 포함한 저작보(著作譜)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율곡의 행적과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율곡 사후 그의 저술에 대한 간행 작업은 지금까지 모두 네 번 있었다. 율곡이 세상을 뛴 지 27년 뒤인 1611년(광해군3)에 간행된 <율곡집>이 첫 번째이다. 율곡의 제자인 박여룡(朴汝龍), 김장생(金長生) 등이 해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집 1권과 문집 9권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분량이었던 까닭에 1682년(숙종8) 박세채(1631~1695)가 초간본에서 누락된 것들을 모아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의 분량으로 재편집하여 간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749년(영조18) 노론-낙론계 거두인 도암 이재(1680~1746)가 기존의 문집을 한 데 모은 뒤 여기에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추가하여 편찬한 뒤, 흥계희가 습유를 추가하여 44권 38책으로 간행하였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는 <율곡전서>의 모본인데, 이 판본은 1814년(순조14)에 다시 중간되었다.

<율곡전서>는 중국 송나라 학자였던 정이와 정호 형제의 문집인 <이정전서(二程全書)>의 체제를 본뜬 것이다. 시문과 함께 <격몽요결>, <성학집요>, <경연일기> 등 율곡의 단독 저술을 망라하여 <율곡집> 또는 <율곡선생집>이 아닌 <율곡전서>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이 <율곡전서>는 이전에 전해지던 모본문집들과 차이가 있었고, 일부 작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자료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교감본 율곡전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1611년에 간행된 <율곡집>과 1682년 박세채가 편성·간행한 <율곡속집>, <율곡외집>, <율곡별집> 등에 수록된 작품들 또한 <율곡전서>의 동일 작품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교감을 거쳤다.

그리고 편집 체제는 이재의 <율곡전서>의 기본 편성을 유지하되 교감을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신승운)에서 제공한 '한국문집 번역·교점·지침 및 사례'에 따라 현대식 표점(標點)도 표시하여 전문 학자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율곡전서>의 국제화에도 편리하도록 했다.

전주대 오항녕 교수는 "집을 지을 때 좋은 벽돌과 나무가 필요하듯이, 인물 연구에는 그가 남긴 문집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본(正本)이 필요하다. 칸트나 마르크스 연구도 그들의 저술을 정본화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근래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에 대한 정본화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감본 율곡전서>는 율곡 이이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정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